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7월 5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OMR카드에 작성하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는 잠자코 열심히 껌을 씹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씹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 보고 저리 돌려 보고 굵뜨기 시작하더니, 이내 마냥 느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됐는데, 자꾸만 더 씹고 있다. 인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체 한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체 대꾸가 없다.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나)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늦은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껌아 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더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껌다가 놓으면 되냐?”

좀 누그러진 말투이다.

(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따위로 장사를 해 가지고 장사가 될 턱이 없다. 손님 본위(本位)가 아니고 자기 본위이다.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중략)

그때,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이는, 그 바라 보고 있는 옆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눈매와 흰 수염에 내 마음은 약간 누그러졌다.

(라) 약재만 해도 그렇다. 옛날에는 숙지황을 사면 보통의 것은 얼마, 그보다 나은 것은 얼마의 값으로 구분했고, 구중구포한 것은 세 배 이상 비쌌다. (중략) 눈으로 보아서는 다섯 번을 찌는지 열 번을 찌는지 알 수가 없다. 말을 믿고 사는 것이다. 신용이다. 지금은 그런 말조차 없다. 남이 보지도 않는데 아홉 번씩이나 찢 리도 없고, 또한 말만 믿고 세 배나 값을 더 줄 사람도 없다.

(마) “그따위로 해서 무슨 장사를 해 먹는담.”하던 말은 “그런 노인이 나 같은 청년에게 멸시와 증오를 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물건이 탄생할 수 있담.”하는 말로 바뀌었다.

나는 그 노인을 찾아가 추탕에 탁주라도 대접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바) 오늘, 안에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북어를 뜯고 있었다. 전에 더덕북어를 방망이로 쿵쿵 두들겨서 먹던 생각이 난다. 방망이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사이는 다듬이질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 애수(哀愁)를 자아내던 그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다. 문득 사십여 년 전, 방망이 꺾던 노인의 모습이 떠오른다.

1. (가)~(마)에 나타난 ‘나’의 심리 변화를 순서대로 옳게 제시한 것은? (3점)

- ① 지루함, 초조함, 억울함, 체념, 분노
- ② 불안함, 단념, 화남, 서운함, 누그러짐
- ③ 초조함, 체념, 불쾌함, 누그러짐, 미안함
- ④ 갑갑함, 미움, 안타까움, 허전함, 쓸쓸함
- ⑤ 당황스러움, 서운함, 증오, 좌절, 안타까움

2.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3점)

< 보기 >

- ㉠ 과거 회상의 형식이다.
- ㉡ 글쓴이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나’의 평가는 달라진다.
- ㉣ 글쓴이는 과거 회상의 계기가 되는 현재의 사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 ㉤ 다른 사람의 전기(傳記)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
- ㉥ 과거와 현재의 삶의 태도가 예시의 방법을 통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 체험을 통한 깨달음을 주는 교훈적 성격의 글로서, 별다른 갈등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 이 글의 중심생각과 같은 것은? (3점)

- ① 모든 사람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나는 나대로, 사랑 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산국화이어도 좋고, 나리 꽃이어도 좋은 것이다.
- ② 모두 조그마한 기쁨이나마 우리의 한때의 기분을 전환하고 우리의 그날그날을 애상과 우수에서 건져 내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 ③ 눈을 들어 잘 보라. 당신 가까이에 그런 꽃이 있다. 늘 보고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다가 눈에 보이는 꽃, 그런 사랑스러운 꽃이 당신 곁 어딘가에 있다.
- ④ 지난 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진부한 한 편의 경구만은 아니다.
- ⑤ 반달이는 튼튼하면서 실용적이고 두루치기인 것이 한국인의 정서와 딱 맞아 떨어진다. 일이십 년을 못 넘기는 합판가구의 화려한 현대 장롱을 보면서 반달이가 그리운 것은 늙어가기 때문일까?

☞ 뒷면에 계속

[4-14]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淸泡)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나) 복권 열풍 부자 열풍 몰아치는 백수 열풍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피시방에 출근하면 내 계좌에 쌓여 있는
사이버 머니 텅 빈 주머니
내 멀쩡한 손 하얀 손으로 변해버렸네.

우우우 놀자 우우우 놀자.
지겨워도 놀 수밖에 없잖아. 일이 없잖아.
우우우 놀자. 우우우 놀자.
이러다가 늙어서도 놀까 봐 걱정되잖아.

(다)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솥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축
했다.

—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는데요.
일주일엔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짓는 데라서
멤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라) 손을 내밀면 연하고 보드라운 혀로, 손등이며
볼을 쓰옥, 쓱 훑아 주며 간지럼을 태우던 흰둥이.
보신탕감으로 내다 팔아야겠다고, 어머니 앓아누
우신 아버지의 약봉지를 세던 밤, 나는 아무도
몰래 대문을 열고 나가 흰둥이 목에 걸린 쇠줄을
풀어 주고 말았다. 어서 도망가라, 멀리멀리, 자꾸
뒤돌아보는 녀석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며 아버지
의 약값 때문에 밤새 가슴이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멀리 달아났으리라 믿었던 흰둥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그날따라 푸짐하게
나온 밥그릇을 바닥까지 다디달게 훑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어린 나는 그에 꼭 참고 있었던 울음
보를 터뜨리고 말았는데,

흰둥이는 그런 나를 다만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는 것이었다. 개장수의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쓰옥, 쓱 혀보다 더 축축이 젖은 눈빛으로 훑아
주고만 있는 것이었다.

(마) 깊고 깊은 두메산골

내 옛 고향은

㉠호박꽃, 박꽃 지붕에 피고

㉡호롱불 봉창은 가난했었다.

누런 들판엔 메뚜기들이

후두두 후두두두두 떼 지어 날아

㉢수수밭, 콩밭에도 푸짐했었다.

㉣모깃불 명석 마당 등잔불 타고

㉤저녁 밥상 둘러앉은 식구들 위에

하늘에서 은은히 별빛도 내려와

4. 시에 나타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2점)

- ① 시인의 삶 ② 시의 표현방법
③ 시의 창작 배경 ④ 시어의 상징적 의미
⑤ 시가 창작될 당시의 현실

5. (가)-(마)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개
고르면? (4점)

- ① (가) :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강인한 저항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② (나) :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낸다.
③ (다) :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④ (라) : 흰둥이와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던 어른으로
어린 날을 회상하고 있다.
⑤ (마) : 과거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7월 5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6. (가)~(마)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점)		10. 다음은 (가)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이다. 문학 감상의 관점 중,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을 <u>두 개</u> 고르면? (3점)			
<div>행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쓴 시로, 문장과 문단 단위에서 운율이 느껴지며 애상적인 분위기를 지닌다.</div>		<div>‘청포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 시를 통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div>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① 내재적 관점 ② 반영론적 관점 ③ 효용론적 관점 ④ 표현론적 관점 ⑤ 절대론적 관점			
7. (가)~(마)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4점)		11. (가)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연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3점)			
① (가) : 일부러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해 운율적 효과를 주고 있다.		<div>① (A)-2연, (B)-6연 ② (A)-3연, (B)-5연 ③ (A)-4연, (B)-3연 ④ (A)-5연, (B)-2연 ⑤ (A)-6연, (B)-2연</div>			
② (다) : 사투리를 사용하여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③ (다) : 말하는 이가 느낀 감동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표현하였다.					
④ (라) : 시를 낭송할 때 호흡이 다소 늦게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					
⑤ (마) : 문장을 끝맺지 않고 끝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8. (가)~(라)에 대한 감상 중, <u>다른</u> 관점으로 감상한 것은? (3점)		12.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연아 : (가)에서는 푸른색과 흰색의 시각적 심상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한 것이 특징이야.		① 화자는 평화로운 공간에서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다.			
② 연재 : (가)에서는 청포도, 푸른, 칠월, 식탁 등의 거센 느낌이 나는 시어를 사용해 시원함을 느끼게 해.		② 짧은 수필처럼 담담하고 편안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③ 홍민 : (다)에서는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어.		③ 노부부만 살고 있어서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④ 현진 : (다)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④ 연의 구분이 없이 줄글로 이루어졌지만 서정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⑤ 현수 : (라)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해.		⑤ 주인집 아주머니와 시적 화자 간의 대화를 인용함으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9. (가)에 대해 옳게 감상한 것은? (3점)		13. (다)와 (마)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4점)			
① 승윤 : 사물을 의인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했어.		① 말하는 이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② 민호 : 평범한 사물을 통해 독창적인 생각을 했네.		②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③ 승훈 :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슬픔이 잘 표현되어 있군.		③ 농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이 드러난다.			
④ 진우 :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신념을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표현했어.		④ 시에 나타난 주된 정서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다.			
⑤ 태현 :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잘 나타냈네.		⑤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마)의 ㉠~㉣ 중, <u>다른</u> 사회·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는? (3점)			
		① ㉠ ② ㉡ ③ ㉢ ④ ㉣ ⑤ ㉤			

뒷면에 계속

☞ 뒷면에 계속

[15-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떼거리의 피란민(避難民)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돌아나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똥똥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썩재기, 우리 눈에 비친 그 애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나) “왜 놀라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는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란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 귀에 선 말씨들을 들어 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 없는 눈빛을 보내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란민 아이들한테 부리는 ㉧뻘새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굴에 고개를 끄덕였다.

“엇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다) “아아니, 너 고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술개가 병아리를 채듯이 서울 아이의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어 어머니는 한참을 ㉨침뵈보고 내뺨뵈보는가 하면, 헛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 저고리 앞섶에 짹짹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 너 요런 것 어디서 났냐?”

웃고름의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숭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 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 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중략)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란민이었다. 인민군한테 발뺨뺨치를 맞혀 가며 피란을 내려왔던 명선네 친척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라사라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란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골치아픈 ㉫뒤통거리로 발견되었다.

(라) 상대방이 판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 누르자, 한창 열세(劣勢)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별안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들고쓰러 버렸다. (중략)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릴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 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치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일라구 그랬거든.”

(마) “그러게 말이네. 머슴엔 줄만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집애구먼.”

“참말로 재변이네. 재변이여!”

모여 서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쟁쟁하게 치마폭으로 명선이의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쓴 것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가 없었다.

“요, 요것이. 개패같이 달린 요것이 뭇이디야!”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다보며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똑 잡아챘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바)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우리 식구 모두는 상전을 모시듯이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중략)

어느 날, 나는 명선이라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내기를 걸어왔다. 나는 남자로서의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밭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쩔어쩔 댄도는 걸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서 겁쟁이라고 폄작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아, 저게 무슨 꽃이지?”

(사)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예의 그 위험천만한 곡예 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처럼 ㉬지옥의 가장귀를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그때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가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다음 장에 계속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유식 : (받는다.) 여보세요. 아,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 아, 예, 그렇게 있어요. 아, 가야지요. (소리 지른다.) 지금 간다니까! (끊는다.)

안미숙 : 엄마 간대?

허영분 : 어머님도, 조금만 더 인심 쓰시지 않고, 세탁이 뭐야, 달랑 세탁!

서옥화 : 어서 가 보세요. 혹시 남은 반 토막 말이라도 들을지 알아요?

안경우 : 맞아요. 형, 사람들도 곧 올 텐데…….

안유식 : 아, 이거 참.

허영분 : 여보, 그냥 가?

안미숙 : 돈은 어떻게 하고?

(나) 안유식 : (세탁소 사람들을 훑어보며) 알았어, 일단 가자고 (강태국에게 명함을 주며)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전화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강태국에게 슬쩍)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강태국 : (기가 막혀 웃으며) 어쨌거나 어머님 잘 보내 드리시지요.

안유식 : (나가려다 돌아서서 비장하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저 말이지, 누구든지 먼저 찾는 사람한테 50프로를 주겠소! (중략)

장민숙 : (서옥화에게) 아줌마는 왜 안 가?

서옥화 : 여기 일 잘하는 아줌마 하나 안 필요해? 50프로가 당길 텐데?

(다) 어두운 무대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움직인다. 어둠 속을 누비는 불빛들. 안유식과 허영분, 안경우와 안미숙, 염소팔, 서옥화, 장민숙과 대영이다. 곡예를 하듯 옷과 옷 사이를 누비고 숨으며 각자 결심을 말한다.

염소팔 : (자신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며) 돈벼락아, 오기만 와라! (중략) (확인시키듯이) 집 한 칸. 아가씨 데려다 앉히고 엄니 모시러 가고……. 엄니, 내는 이제부터 도둑놈입니다. (중략)

장민숙과 대영이 손전등을 자신들의 얼굴에 비춘다.

장민숙 : (이를 악물며)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야. 이젠 다 하고 살 거, 아야! 아우, 허깨물었다! 아우.

강대영 : (짜증 내며) 엄마가 하고 싶은 일에 왜 나까지 끌어들이! 진짜 짜증 나!

(라) 그들은 강태국의 뒤에, 밑에, 앞에 숨어서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며 입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서로 모르려니 하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서로의

소리에 놀라면 야옹거리고 그림자에 놀라면 짹 짹거리면서 숨으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한다.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불빛에 춤을 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 던져져 날아다니는 옷들, 염소팔이 던진 옷에 백열등이 크게 흔들린다. 놀란 사람들이 제복에 얼른 옷 사이로 숨는다. 강태국이 놀라 주위를 둘러본다.

(마) 강태국 : (전략) (헛웃음을 짓는다.) 쫓, 인간 강태국이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인가?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 있게 살아 보겠다는데 왜 흔들지? 돈이 뭐야? 돈이 세상 전부야? 그런 거야? 이 세상이 ‘돈’ 세상이야? 돌았다 이거지? 돌아 버린 세상에 같이 돌아야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돌지도 못하잖아요. 아버지 책임져요! (셔츠 소매에 눈물을 닦고) 아버지, 나 괜찮아요. (코를 풀고) 나요, 세탁소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 다 알잖아. 그럼 됐지. (세상에 대고 말하듯) 네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

(바) 강대영 : (방백) 진짜 짜증 나. 아버지 왜 그러시지?

허영분 : (방백) 미쳤어!

염소팔 : (방백) 돌아 버리겠네.

장민숙 : (옆의 다른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비명 지른다.) 악!

강태국 : (놀라며) 거기 누구요?

사람들 : (모두 놀라 다급하게 저마다 동물 소리를 낸다.) 야옹, 짹짹. (중략)

사람들, 점점 더 음흉스럽게 짐승 소리로 으르렁댄다.

23. 이 글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상징적인 심리 묘사와 비현실적인 대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②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 받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나타난다.
- ③ 형제·자매 간의 다툼을 통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주제로 하고 있다.
- ④ 제목이자 공간적 배경인 ‘오아시스 세탁소’는 다양한 인물들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 ⑤ 인물들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다음 장에 계속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7학년도 7월 5일 1교시	출제자	양지현, 이승진, 송현호		
		반 번호: _____		이름: _____	

24. <보기> 중, 이 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점)

— < 보기 > —

㉠ 행동과 대사를 통해 전개된다.
 ㉡ 등장인물의 수에는 제약이 없다.
 ㉢ 현재화된 인생 표현의 문학이다.
 ㉣ 인물 간의 대립 상황이 나타난다.
 ㉤ 독자가 읽기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많은 글이다.
 ㉧ 4단계 구성 중의 마지막 단계는 대단원이다.
 ㉨ 촬영을 위한 특수용어를 필요로 하는 글이다.
 ㉩ 서술자가 공간적 배경 묘사를 치밀하게 한다.
 ㉪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구성 단계는 하강이다.
 ㉫ 장면으로 이루어지며 장면의 전환이 자유롭다.
 ㉬ 인물, 사건, 배경의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는 글이다.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25. 연극 공연을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가)의 안씨 가족들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과장해서 연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② (나)의 서옥화는 가족들의 걱정을 함께하는 인물로 다정다감하게 연기해야 하겠지?
 ③ (다)와 (라)에서 무대는 전체적으로 어둡게 구성하고 7명의 등장인물들이 손전등을 비추게 해야 돼.
 ④ (마)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⑤ (바)의 등장인물 강대영과 허영분, 염소팔은 관객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상대방은 들리는 것으로 약속하고 연기해야 하지.

2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옳게 제시한 것은? (3점)

(A) 이 인물은 ‘방망이를 쥐는 노인’ 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노인이 방망이를 쥐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제대로 만듦으로써 보람을 느꼈듯이 이 인물도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서 살고자 한다.

(B) 이 인물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며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인물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등 비도덕적이다.

① (A):염소팔, (B):안경우 ② (A):강태국, (B):허영분
 ③ (A):강대영, (B):서옥화 ④ (A):장민숙, (B):안미숙
 ⑤ (A):강태국, (B):안유식

27. (가)-(바) 중, 인물의 회화화를 통한 풍자성이 두드러진 부분을 옳게 짝지은 것은? (4점)

① (가), (다), (라) ② (나), (다), (라)
 ③ (다), (라), (바) ④ (다), (마), (바)
 ⑤ (라), (마), (바)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울 남산 아래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으며, 게으르고 생각이 좁았다.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지 못하고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할 줄 몰랐다. ㉡사람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을 해도 뽐내지 않았다. 오직 즐기는 것은 책을 보는 일이어서 추위나 더위, 배고픔이나 아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중략)

읽지 못한 책을 만나면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래서 집안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면, ‘좋은 책을 만났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두보의 시를 무척 좋아해서 앓는 소리처럼 웅얼웅얼 읊었다. 그러다 깊은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기뻐하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갈까마귀가 우는 듯했다.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없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자세히 살피기도 하고, 꿈꾸는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看書癡 : 책만 읽는 바보)’ 라고 불렀는데 그도 그 이름을 좋아했다. 그의 이야기를 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붓을 들어 적고 제목을 ‘간서치전’ 이라고 붙였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은 적지 않는다.

28. 이 글에 나타난 간서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지 못했다.
 ② 읽지 못한 책을 만나면 즐거워했다.
 ③ 말을 잘하지는 못했으나 부지런했다.
 ④ 오직 즐기는 것은 책을 보는 일이었다.
 ⑤ 시를 읽다가 깊은 뜻을 깨우치면 매우 기뻐했다.

29. ㉠~㉤ 중에서 간서치가 아닌 대상을 두 개 고르면? (2점)

① ㉠ ② ㉡ ③ ㉢ ④ ㉣ ⑤ ㉤

☞ 뒷면에 계속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을묘년(1795년, 정조 19년)에 탐라(耽羅)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계속 굶어 죽었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백성들을 먹이라는 명을 내렸다. 거친 바닷길 팔백 리를 뚝단배가 배틀에 북 나르듯이 자주 왕래하였으나 제때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자 만덕은 천금(千金)을 내어 육지에서 쌀을 사서, 여러 고을의 뱃사공에게 제때에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만덕은 그 십분의 일로 자신의 친척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실어 보냈다.
- (나) 임금이 후한 상을 내리며 말하였다.
- “네가 여자의 몸으로 의롭게도 수많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 만덕은 반년을 지낸 뒤 정사년(1797년) 늦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만폭동, 중향성 등의 기이한 경치를 차례로 구경했다. 만덕은 금부처를 마주하여 땅을 이마에 대고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공양하였다. 탐라에 불법(佛法)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덕은 선여덟의 나이에 절과 불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 (다) 만덕은 성이 김(金)으로 제주도 양민(良民)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생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만덕이 성장하면서, 관청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생 장부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여 기생으로 일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만덕이 스무 살 무렵, 관청에 자신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관청에서 만덕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기생 장부에서 빼내어,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 (라) 제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왕명(王命)을 알려 주며 물었다.
- “네 소원이 무엇이냐?”
-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올라가 임금님 계신 곳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 당시 나라의 법으로 탐라의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 목사가 다시 만덕의 소원을 아뢰었다. 임금이 만덕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했다. 관청에서 서울로 올 때까지 말을 제공하고 객관(客館)마다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 (마) 만덕은 떠날 때, 채 정승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어 말했다.
- “이제 살아생전에는 다시는 정승님의 얼굴을 뵈 수 없겠군요.” 이어 눈물을 글썽거렸다.
- 그러자 채 정승이 말했다.

“(중략) 자네는 탐라에서 성장하여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번에 또 금강산을 두루 돌아다녔으니, 삼신산 가운데 두 곳을 직접 유람한 셈이네. 천하의 수많은 남자조차도 이렇게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어찌서 마음 약한 아녀자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가?”

그러고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여 ‘만덕전’을 짓고는 웃으며 만덕에게 주었다.

30. 이 글 전체에 드러나는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왕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 ② 탐라에는 불법(佛法)이 전해지지 않았다.
 - ③ 나라의 빈민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 ④ 신분 제도가 있었고,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 ⑤ 탐라의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물에 오르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31. 탐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만덕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3점)
- ① 제주 목사(牧使)에게 배를 운반해 달라고 청했다.
 - ② 관청에 쌀을 보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 ③ 관청에 가서 굶주린 백성들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 ④ 탐라의 흉년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 ⑤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천금(千金)을 빌려 육지에서 쌀과 뚝단배를 샀다.
32. 이 글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 ① (가)-(다)-(라)-(나)-(마)
 - ② (나)-(가)-(다)-(라)-(마)
 - ③ (다)-(가)-(나)-(라)-(마)
 - ④ (다)-(가)-(라)-(나)-(마)
 - ⑤ (라)-(다)-(가)-(마)-(나)
33. 이 글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만덕에게 본받을 만한 점을 두 개 고르면? (3점)
- ①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 ② 왕과 왕비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
 - ③ 당당하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
 - ④ 대가 없이 채 정승에게 만덕전을 지어 준 모습
 - ⑤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는 모습

-----<끝>-----

※ 선택형 33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33문항)	
100	100

[객관식]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③	12	②	23	⑤
2	②	13	①	24	①
3	⑤	14	⑤	25	①
4	②	15	③	26	⑤
5	②, ⑤	16	③, ⑤	27	③
6	④	17	②	28	③
7	④	18	④	29	②, ③
8	③	19	③	30	④
9	① 또는 ④	20	⑤	31	②
10	①, ⑤	21	④	32	④
11	④	22	①, ④	33	③, ⑤